



The Nursing Times

Sol-Times 11th Edition
회장 김유빈 dbqls0506@naver.com
기사부장 이호은 aness002@naver.com
사진부장 고남의 skadml1103@naver.com
발행부장 최은비 chldmsql89@naver.com
총무 진윤정 yoonjung4665@naver.com

VOL.11 (09.01~09.30)

Published on 10.27. 2016 Copyright © Sol-Times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을 방문하다!



2016년 9월 2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청 견학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기 위해서이다. 통계청 전시관의 도입의 장, 통계 알리의 장, 통계청 홍보의 장, 통계 체험의 장 등으로 구성된 참여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다. 전시관 체험 후, 통계의 역사, 역할 및 활용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은 '나이팅게일이 수많은 부상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던 혁신적인 방법이 통계를 사용했던 것이었듯이 간호학과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통계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호은 기자/고남의 사진

간호학과 강창희 학과장 취임 인터뷰



Q. 우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새 학과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학과장으로서 목표는 어떤 것일지 알려주세요.

A. 2학기부터 학과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목표와 계획을 이끌어 한 해가 잘 마무리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5기 졸업생인 4학년 학생들의 취업과 국가고시가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및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학생들이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고맙습니다. 그 재능에 더해 학과에서 제공하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발전시켜주었으면 하고,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깊이 멀리 내다보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호학과가 명문대가 되는 것은 학생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매년 발전해나가는 학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나 기자/이유나 사진

정영숙 신임 교수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간호사로써 이렇게 간호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상경험보다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업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특히 요양보험의 급여와 심사체계 등)시행 및 정착에 관여 하였습니다. 비록 간호사로서의 임상경험은 많지 않으나 임상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사로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등을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데 힘쓰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과목과 앞으로의 역할기대

A. 향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즉,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 관련 내용 등도 포함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현 보건의료분야의 시스템과 간호사가 필요한 분야 및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폭 넓은 이해와 비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호은 기자/고남의 사진

Global Nursing Camp in Russia



2016년 여름, 간호학과 학생들이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줄 대표 손희주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의 월드프렌즈 32기로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14박 16일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교육 봉사, 주민건강증진활동, 문화탐방 등을 하고 왔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유니세프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심화교육에 참여하면서 건강증진활동 등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실제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니세프를 방문하여 실제 그 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적이면서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차윤주 기자/고남의 사진

